

제 목	MZ 세대란 정말 존재하는가.		
소속 대학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정치행정학과
학 번	2020	이 름	이**
이메일		연락처	

한 세대를 특정한 용어로 구분 지어 나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일이다. 전쟁 후 태어난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들을 586 세대라 부르는 것 등이 그 예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편적인 세대 구분을 넘어선 ‘MZ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 용어가 등장했다. 최근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MZ 세대가 등장한다. ‘MZ 세대의 특징,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 MZ 세대의 문화’ 등 MZ 세대에 관한 각종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도대체 MZ 세대가 뭐길래 그러는 걸까? MZ 세대(MZ generation)란, 밀레니얼(Millennials)의 M과 제너레이션(Generation)의 Z가 합친 것으로¹⁾,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MZ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MZ 세대가 차지할 것이라 전망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은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²⁾ 필자는 MZ 세대에 관한 설명을 아무리 몇 번씩 읽어봐도 왠지 모를 묘한 이질감이 당최 지워지지 않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끝내 MZ 세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대의 구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MZ 세대의 정의에 따르면, 2000년대에 태어난 필자와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세대로 구분된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집단을 진정 같은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필자는 3살 터울의 오빠 한 명이 있다. 남매간의 가장 보편적인 나이 터울 중 하나일 것이다. 고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필자와 오빠 사이에는 분명한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 과정에도 사소한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진 ‘노는 토요일’에 대한 기억도 다르다.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토요일에 학교를 등교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학교에 가던 기억이 다소 흐릿하지만, 초등학생을 거쳐 중학생 때까지 토요일에 등교했던 오빠는 노는 토요일에 대한 기억이 무척 뚜렷하다. 필자보다 나이가 서너 살 정도 더 어린 사람은 노는 토요일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필자는 띠동갑 차이가 나는 사촌 언니가 있는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언니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환경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더 큰 차이가 나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불과 1~2년 사이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발전이 빠른 세상에서 자라온 환경, 문화,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을 같은 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두 번째, MZ 세대라는 구분은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다 함께 어우러져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나와 의견이 다르면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세대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과의 갈등에서 이 특징이 두드러진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소위 MZ 세대에 해당하는 젊은 층은 노년층을 '꼰대' 취급하고, 노년층은 MZ세대를 보고 '요즘 것들'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는 글과 요즘 신입사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글이 공존하며 꼰대 특징, MZ 세대 특징이라면서 서로를 비아냥거리는 글이 각종 SNS에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정말 MZ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며, 이기적일까? 반대로 노년층은 복종을 강요하며, 배려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일까? 당연히 아니다. 일례로, 필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태도에 관해 부모님께 조언을 자주 구하는 편이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알게 모르게 놓칠 수 있는 말투, 예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필자의 부모님이 필자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경우가 있다. 역으로 '젊은 꼰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처럼 성격과 태도는 개인의 성향일 뿐 절대 세대로 구분할 수 없다.

세 번째, MZ 세대라는 구분은 MZ 세대다움을 강요한다.

MZ 세대의 특징을 읽으면서 특징에 공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MZ 세대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은 무척 신중해야 한다. 필자는 MZ 세대에 해당하는 나이지만, 세간에 떠도는 MZ 세대의 성격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많다. 필자는 변화를 좋아하지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도전을 싫어한다. 반면 필자의 오빠는 필자와 정반대의 성격이다. 변화에 유연하고 도전하기 좋아하며 자기주장을 거침없이 펼친다. 그렇다면, 필자의 오빠는 적절한 MZ 세대이고, 필자는 부적절한 MZ 세대인 걸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저 필자와 필자 오빠의 성향과 성격이 다른 것뿐이다. 필자는 MZ 세대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누가 정해놓은 지도 모를 MZ 세대의 특징이 종종 필자에게는 압박감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결국, MZ 세대라는 구분은 이분법적 사고를 부추길 뿐이다. 근래에도 MZ 세대의 특징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필자는 그런 논조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나는 MZ 세대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건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필자는 MZ 세대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나 각종 TV프로그램, 기사 등이 MZ 세대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MZ 세대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세대 구분 용어다. MZ 세대와 MZ 세대가 아닌 사람으로 세대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성격과 성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
- 1) 김창윤, 「MZ 세대 맞춤형 소비전략이 필요하다」, 『제주 매일』, 2021.3.22.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291>(접속일 2022.4.28.)
 - 2) MZ세대(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한경닷컴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4683>)